

코로나19 소독방역 총력전

아중호수 생태공원, 시민 생태휴식처로 단장

전주시, 산책로에 공중화장실·진입데크 조성해 전면 개방·7월까지 수변 탐방로도 조성키로

전주시, 전 시민 일제 소독의 날 맞아 사회복지시설·소규모 공동주택 소독방제 실시

전주시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들이 머무는 사회복지시설과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방역에 총력전을 펼쳤다.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80%가 집단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 선제적인 조치다.

시는 11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전 시민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 단체, 소상공인, 대학생,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방역을 실시했다.

이날 시는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방역을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독방역을 중점 추진했다. 또 노후화되고 지속적인 관리를 못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소독작업을 벌였다.

대학생들과 상인회 등 단체들도 소독방역에 동참했다. 전북대학교 학생회 50여 명은 대학로 삼삼가 주변에



전주시는 11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전 시민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 단체, 소상공인, 대학생,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소독방역을 실시했다.

대한 일제소독을 나섰다. 또 상인회와 공동체 등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과 한옥마을, 롯데백화점 주변, 신시가지, 영화의 거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활동을 펼쳤다.

시의 경우 관계기관 직원과 단체, 시민 등 2000여명과 함께 다중이용 집합

장소를 비롯한 159개 구간의 일제 소독을 진행했다. 또 35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소독약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소독장비도 무상 임대해 시민들이 자신의 집과 가게, 사무실과 작업실, 집 앞 골목길, 공동체 공간 등을 자발적으로 소독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가 아중호수 생태공원에 화장실과 수변 탐방로를 조성해 시민들의 생태휴식처로 단장한다.

전주시는 아중호수 생태공원을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지역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왔던 공중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고 수변 탐방로도 조성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아중호수 산책로에 약 32㎡(10평) 규모의 공중화장실과 진입데크를 조성하고 시민들을 위해 전면 개방키로 했다.

시는 그간 공중화장실로 인한 시민

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농어촌공사와 토지사용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공중화장실 조성을 완료한 상태다.

시는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위해 화장실에 방난방시설을 구비하고, 야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가로등과 방범용 CCTV도 설치했다.

또한 공중화장실이 아중호수 생태공원과 어울리도록 외벽을 원목 재료를 사용했으며, 화장실 주변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목도 식재했다. 또한 아중호수를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지역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수변 탐방로(L=160m)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수변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존 수변 산책로보다 수면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고 경관 조경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용객이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는 전망공간인 한옥정자도 설치키로 했다.

시는 이번 화장실 개방과 수변 탐방로 조성을 통해 총길이 2.4km의 호수 순환산책로 개통 이후 늘어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전주시, 올해 총 3억원 투입해 공동주택 500여 가구에 지원

전주시가 아파트 베란다가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저장기구를 늘리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총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동주택 500여 가구에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베란다형 태양광(햇살아파트)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정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약 300W 규모의

태양광모듈 용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300W 규모는 매월 전기요금에 3~6만원이 나오는 가정의 경우 연간 약 1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연간 394.2kWh 발전해 178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일반가구는 60만원, 저소득층 가구는 63만원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참여 세대가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단, 전체세대가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

의 경우 107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전주시청 맑은공기에 너지과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부터는 사업에 참여할 아파트를 우선 접수한 뒤 시공업체 선정키로 했다. 지원대상 아파트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전기사용량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적고 각 세대의 탄소포인트 가입률이 높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시공업체의 경우 본사가 전라북도에 소재해야하며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태양광) 참여기업이거나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한다. 여가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계열 이상인 업체로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최근 시공실적, 제안설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대중교통시설 열화상카메라 운영 현장 방문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옥 의원)가 11일 전주역, 고숙시외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열화상카메라 운영 현장 방문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위원회는 이날 코로나 대비 긴급 추경편성 관련 재난관리기금 활용에 대한 해당부서와 간담회를 마치고 다중

이용시설 열화상카메라 운영 현장을 방문, 과일, 다과, 음료수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감염병 발생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감염병 오염 지역 등 외부 여행객에 대해 철저한 검역을 거쳐 지역 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옥 위원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비상근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가 퇴치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형 상생실현인 ‘착한 임대운동’이 시작됐던 전주 한옥마을 공동체들이 코로나19의 여파로 힘겨워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착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한옥마을 공동체, ‘착한 나눔’ 운동 전개

5개 단체·주민·상인 동참해 1400만원 상당 물품 시에 전달

전주형 상생실현인 ‘착한 임대운동’이 시작됐던 전주 한옥마을 공동체들이 코로나19의 여파로 힘겨워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착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한옥마을 주민들은 11일 시청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14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빵 등 간식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매출도 70% 이상 줄어드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해준데 이은 착한 나눔 운동에 나선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한옥마을 주민들의 착한 나눔 운동은 한옥마을 비영리공동체가 지난해 28일 임시 이사회를 갖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자는데 뜻을 모

으면서 시작했다. 이후 한옥마을 공동체 5개 단체, 150여 명의 주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성금 11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모으게 됐다.

대표적으로 한옥마을 차량통제원으로 활동 중인 주민이 모시는 ‘한옥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그간 모아왔던 급여의 일부를 성금으로 내놓았다. 또 가족이 함께 빈티지한 소품과 옷을 판매하는 상점과 바게트버거 판매점 등도 ‘착한 나눔’ 운동에 동참했다.

또한 한옥마을 어진포럼 회원 60여명도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변 상가와 여행객들에게 마스크 2000개와 손소독제 1600개를 배부하기도 했다. 또 한옥마을 체험·공예

공방 29개소로 구성된 ‘한옥마을 별별체험단’과 수공예작품을 전시·판매하는 ‘한옥마을 문화장터 작가협회’도 착한 나눔에 힘을 실었다.

시는 이날 전달받은 성금을 전주 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 지정 기탁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빵을 비롯한 간식거리 1100개를 전주시 선별진료소와 염마의 밥상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에 이어 ‘착한 나눔’까지 한옥마을 공동체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는 한옥마을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지우편 : jjvs@hanmail.net